

수강료·책값 구분 않고  
강의시간 늘려 과다징수

# '학원비 바가지' 심하다

## 광주·전남 3년간 272곳 적발... 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안돼

학원비 문제로 어머니와 딸다툼을 벌이던 충북 청주의 한 고교생이 24일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과도한 학원비에 대한 부작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학원비 종합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부당징수 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광주·전남지역도 학원비 초과징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나 터무니 없이 적은 단속 인원 등으로 인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강료 초과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된 학원은 196곳에 달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같은 기간 서울(1천516곳), 경기(220곳)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전남은 76곳이었다.

광주는 올해(8월말 현재) 38곳을 비롯한 ▲2007년 85곳 ▲2006년 16곳 ▲2005년 57곳 등이 학원비 과다징수로 지역교육청에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단속 인원이 부족해 지속적인 강도의 단속을 펼치기 힘든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동·서부교육청 소속 단속 공무원 6명이 광주시에 전체 학원 4천866곳을 맡고 있다. 1명 당 811곳 꼴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6곳, 2007년 24곳, 2006년 30곳, 2005년 16곳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징수로 적발됐다.

학원비를 높게 책정하는 학원들은

###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적발 현황

지역	적발건수	행정처분 내용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및 벌점 부과
광주	196	4	5	187
전남	76	0	2	74

대개 수강료와 책값을 따로 구분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리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쉽게 단속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책은 학원의 모기업에서 직접 만들어 소비자가격이 책정돼 있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이 될 수 있고, 강의 시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기 때문이

다.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 196곳 중 등록말소 4곳과 교습정지 5곳을 제외한 187곳은 경고(벌점 부과) 처리됐다. 전남은 전체 76곳 중 2곳이 교습정지, 36곳은 시정명령, 38곳은 경고(벌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초과징수 내역에 따르면 광주는 적발 학원 중 71.2%인 141곳이 규정 수강료의 50% 이하를 초과징수했고, 배 이상을 받은 곳도 20곳(10%)이나 됐다.

지역적으로는 광주 서부교육청이 77.8%인 154건으로 동부교육청 42건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전남에서

는 여수(34곳·44.7%), 목포(20곳·26.3%), 광양(10곳·13.1%), 순천(6곳·7.9%) 등 도시지역에서 초과징수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천505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41곳은 등록 말소, 161곳은 교습 정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조례로 정한 적정 학원비는 월 20시간 기준으로 보습 단과(국·영·수 등)학원 5만1천 400원, 외국어 학원 내국인 5만8천 600원·외국인 8만1천900원, 입시 종합반(월 120시간 기준) 16만4천800원 등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올돌목 거북배 본격 운항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인 '올돌목 거북배'가 24일 전남 해남 우수영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운항에 나섰다. '올돌목 거북배'는 다음달 초부터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벽파항을 기항지로 하루 네 차례 왕복 운항하게 된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광주지검, 법원에 첫 청구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4일 같은 동네에 사는 어린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김모(58)씨 등 2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광주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13일과 지난 7월 21일 같은 동네에 사는 A(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김모(26)씨는 지난달 12일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광주지검 이재만 검사는 "이들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 돈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심을 산

다음 음란하고 잔인하게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했다"며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김씨 등은 광주·전남지역 전자발찌 착용 첫 대상자가 된다. 현재 구속 중인 이들은 법원이 전자발찌 착용을 결정할 경우 석방 이후 법원이 정한 기간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아동 성폭력 및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일부 농민, 보조금으로 땅 장사"

### 구례 15명 유용 혐의 수사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구례군 일부 농민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받아 부당하게 유용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구례군 농민 15명은 축사 신축 및 가뭄 등 해소 제 조 사업 명목으로 지난해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구례군으로부터 지자체 보조금을 교부받아 부당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보조금을 받아 논·밭 등을 산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군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례군 일부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구례군청 민원봉사과와 친환경농정과 등 일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등 15명 이외에도 보조금을 유용한 농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사물포시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여지대학서 숙곳 홈쳐 음란행위

○여지대학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숙곳을 훔친 뒤 음란행위를 하던 20대 남성이 여대생들에게 불잡혀 경찰서행.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김모(27)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 모 여지대학교 무용과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정모(여·19)씨의 지갑에서 현금 2천원을 훔친 후 김모(여·19)씨의 숙곳 두 장을 훔쳐 탈의실 옆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

○김씨의 절도사실을 알아챈 정씨 등 3명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김씨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한 후 김씨를 붙잡았으며 경찰에 인계했다고.

○김씨는 지난 2005년에도 이 학교에서 여대생들의 숙곳을 훔치다 절도죄로 1년6개월 동안 복역, 출소한 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김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김철성기자 kps@

## 학교 폭력 다시 늘었다

광주 상반기만 86건

광주·전남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 지난해 약간 감소했다 올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올해 1학기 현재 86건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이 추세라면 지난해 수치인 98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의 올해 1학기 발생 건수는 76건으로 지난해 152건의 절반 수준이지만 피해학생 수가 166명으로 지난해 177명에 근접했다.

올해 1학기 광주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은 발생유형별로 ▲신체폭행 52

건 ▲협박 5건 ▲금품갈취 20건 ▲집단따돌림 1건 등이었다. 가해학생은 155명(남 96·여 59), 피해학생은 118명(남 77·여 41)이었다.

전남은 ▲신체폭행 60건 ▲협박 2건 ▲금품갈취 1건 ▲집단따돌림 3건 등이며, 가해학생은 265명(남 176·여 89), 피해학생은 166명(남 108·여

58)이었다.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가해학생 197명 중 가장 많은 81명(41.1%)이 교내봉사 명령을 받았고, 서면사과 27명(13.7%), 사회봉사 21명(10.7%), 출석정지 14명(7.1%) 등 순이었다.

전남은 350명의 49.1%인 172명이 교내봉사, 84명(24%)은 서면사과, 44명(12.6%)은 사회봉사 등을 받았다. 퇴학처분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6명, 5명이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20억 책겨

### 여수경찰, 30대 영장

여수경찰서는 24일 국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2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이모(37)씨에 대해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국외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 12개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게임' 등을 제공해 인터넷 도박을 즐긴 사람으로부터 수수료와 달

러 비 명목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아 행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국외에 두고, 대표통장을 통해 약 800여명으로부터 도박판 돈을 송금받고 게임 결과에 따라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수수료와 딜러 비를 떼고 돈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돈을 송금한 800명에 대해서도 도박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여수=박영규기자 ypkp@

**이엘리시아** www.ialystia.com

상품권 판매, 들잔치, 각종 모임 및 행사 (100여종, 50만~200만 원까지)

신입부우회 당선와 유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062) 671-1199

가볍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신입부우회 당선와 유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062) 671-1199